

차례

안식일-기쁨의 날.....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1
 질의응답.....7
 적극적이 되라.....오슨 스코트 카드.....13
 성찬과 성약.....더블류 콜 더럽 이세.....15
 지역 지도자 메시지.....한 인상.....18
 지역 소식.....19
 기작.....쉐리 존슨.....21
 세계 어린이들의 간증.....25
 어떻게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26
 현대의 기적.....제이 에이 패리.....32
 금식-기쁨을 주는 은사.....세릴 콘티 캠프.....37
 교회의 활력소.....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40
 크리스찬의 개종.....고든 어빙.....42
 그들은 진과 다름없이 해주었다...바라라 불.....48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킴볼
 앤 엘론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몽기
 엘툼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고문

매리온 디 행스
 로버트 디 헤일즈
 딘 엘 라슨
 리차드 지 스코트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1,2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15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25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빛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권 : 제156호, 제14권 제7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 1978년 7월 1일 (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 유진 피 털
 번 역 : 한국 번역 출판부 74-6832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와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1978년
 제14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안식일-기쁨의 날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어느 해 가을 나는 미국 서부의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서 열리는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라는 지명을 받았읍니다. 나는 토요일 저녁에 그곳에 도착하여 그곳의 스테이크 부장과 그의 가족들과 하룻밤을 지낸 적이 있었읍니다. 아침에 우리는 집회소까지 10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자동차로 달리면서 여러 개의 농장을 지났읍니다. 농장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음이 분명히 나의 눈에 띄었읍니다.

우리는 누렇게 익은 아름다운 밀밭을 바라보았읍니다. 밀밭에는 전날 밤에 농부들이 일하다가 놓아 둔 농기구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읍니다. 우리는 쌓다 만 건조더미도 보았읍니다. 들판에는 아직 쌓지 않은 건조도 많이 있었읍니다. 곡식은 일부는 거두어졌으나 아직 거두지 않은 것도 있었읍니다. 그 고장은 완전히 휴식을 취하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평화와 정적을 찾을 수 있었읍니다. 망치 소리나 기계 소리나 그외 어떠한 소음도 들을 수가 없었읍니다. 오히려 그 계곡의 사람들은 사방에서, 교회를 향해 모여들고 있었읍니다.

나는 스테이크 부장에게 이 진귀한 광경에 관해 말하고, 가정 복음 교사가 그들을 방문하여 솔트레이크에서 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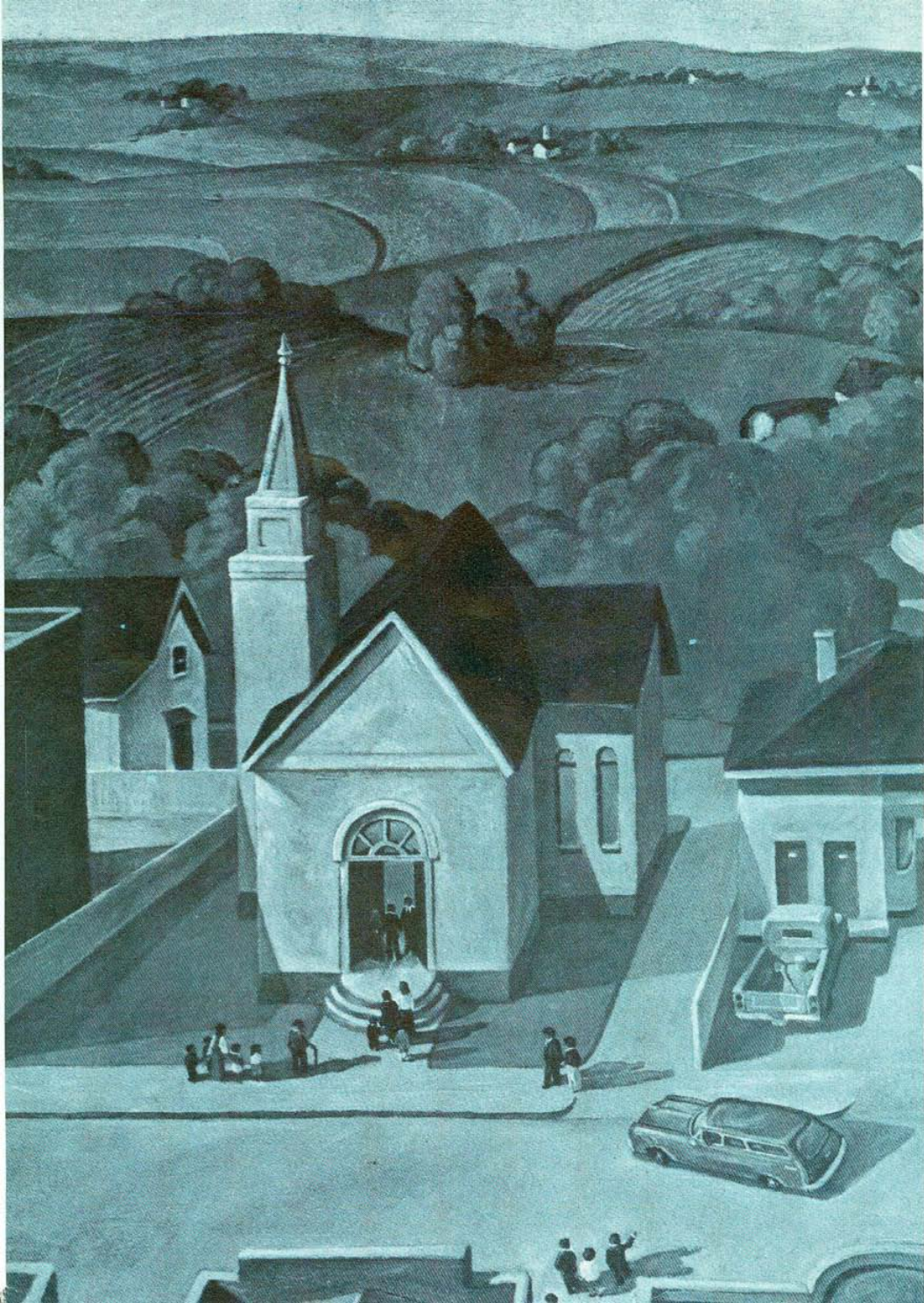
이 오실 것이라고 말했는지 물어 보았읍니다. 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 주민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평소부터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스테이크 내의 모든 가족이 매주 모임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그의 말을 뒷받침해 주었읍니다.

이날은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읍니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오는, 따뜻하고 유쾌한 날씨였읍니다. 저 멀리 보이는 산에는 가을의 색깔로 물들고 있었읍니다.

그날의 모임과 회의는 평화스럽고,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웠읍니다.

이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한번은 내가 어떤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나는 주위에서 떠드는 소리에 놀라 아침 일찍 잠이 깨었읍니다. 나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가 하고 보았더니 사냥복을 입고 엽총을 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떠들고 있음을 알았읍니다. 그들은 산과 협곡으로 사슴을 잡으러 가는 중이었읍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는 나는 차를 몰고 농촌 지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풀을 깎고 있는 모습과 들판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곡식을 거둬들이는 농부를 보았읍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는 영화관에 들어가 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식일날 호수는 보트로 가득 차며, 해안은 인파로 붐비고, 쇼는 관중으로 초만원이 이루어 됩니다. 골프장에는 골프 애호가들로 가득 찹니다. 안식일은 로우디오(카우 보이의 말타기 대회), 회의나 가족 소풍의 날로 변모해 가고 있으며, 성스러운 이날에 각종 구기 게임이 열립니다. “주일날도 일하자”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슬로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스러운 날이 휴일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공휴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재미를 찾는 자와 상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날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깨뜨리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중요한 계명의 하나에 불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모세는 땅이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시나이산에서 내려와 방황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인간 행위의 근본되는 원리인 십계명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계명은 태초로부터 그 계명에 따라 살도록 명을 받았던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단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계명은 지상 생활에 앞서 주어진 것이었으며 천국 회의에서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아브라함 3:25) 보기 위하여 인간을 시험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은 인간이 주님을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네째 계명에서는 특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한 날을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찌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아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와 함께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3, 8-11)

이 엄숙한 계명이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계명은 한 번도 폐지되거나 수정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계명은 현대에 와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또 이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이다.”(교성 59:12-13)

안식일에 사냥이나 낚시하러 가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날에 나무를 심거나, 밭을 갈거나,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것도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험곡으로 소풍을 가거나, 운

동 경기나, 경마나, 경주나, 쇼나, 다른 오락을 즐기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마 5:19)

건전한 오락, 즉 운동, 소풍, 연극, 영화 등 그 자체는 훌륭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삶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치있는 일에는 적당한 때와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즉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놀 때와 예배드릴 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규정지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지 주어진 시간을 잘 계획하고 때를 잘 선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특히 우리의 시대에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옛 새 동안 우리는 충분히 일하고 놀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다른 날에 많은 활동을 하도록 계획할 수 있습니다.

소년단 간부들은 소년단 하기 야영 때 회를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에 끝낼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그러면 말일성도 청소년은 연 두 주일 동안 신앙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소년단 당국에 친밀한 제언을 드립니다. 계획을 변경시켜 야영 기간을 금요일에 시작하여 다음 금요일에 마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갖게 되는 일요일은 야영에 참가한 소년들을 위한 종교적인 예배를 갖도록 계획하기를 제

의합니다.

어떤 신학 연구원 중등부반에서는 주 일날 산에서 예배를 갖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그날의 활동의 일부로 간증을 회를 계획하여 마음속의 죄책감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모임을 갖고 또한 영적인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런 뒤에는 피크닉과 게임과 하이킹과 등반으로 시간을 보냈으며 안식일이라는 생각은 전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한 시간의 영적인 시간이 그날을 성스럽게 하지는 못합니다.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유익을 얻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림으로써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계명에는 소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의 집에 가서...네 성찬을 바칠지어다...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로”...(교성 59:9-10, 15)

안식일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모임에 참석하며, 경전을 배우며, 지시를 받으며,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며, 훌륭한 음악과 찬송가에서 영적으로 고조됨을 얻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가치있고 성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날입니다. 일과 오락을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안식일에는 생산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를 꿇고 기도하며, 공과를 준비하며, 복음을 공부하며, 명상하며, 병자와 곤

경에 처한 자를 방문하며, 선교사에게 편지를 쓰며, 낮잠을 자며, 건전한 서적을 읽으며, 참석해야 할 모든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어떤 선량한 분은 주일 날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보다 훌륭한 책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설교는 그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흥미를 위해서 또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안식일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갑니다. 이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온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면, 설교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개의치 않고 그는 모임에 참석하고 성찬을 취하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명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잘못된 것이라면 여러분은 실패한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계명에 관해서는 다른 많은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 : 14-15)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찌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

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레 26 : 2-6)

생산 업체 중에서는 안식일에 조업을 해야 하는 공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체의 종업원들은 안식일에도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때때로 이러한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결심만 한다면, 얼마 안 가서 주일날 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방법을 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주께서는 소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구덩이에서 소를 끌어 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일부러 매주 소를 구덩이에 빠뜨리는 사람은 없으며, 또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소를 보고 끌어내려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에 일해야 합니다. 병자를 돌보는 일과 같은 것은 주일날에도 꼭 해야 할 일이며, 이것은 사실상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활동에서 우리의 동기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돈을 벌기 위하여 안식일에 일을 한다면 그들은 계명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며 만일 그 일이 불필요한 일이라면 안식일에 번 돈은 부정한 돈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안식일에 일을 하여 수입의 십분지 일을 십일조로 바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번 이 노동의 대가를 현물로서 바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주님께 드리는 헌물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식일날 번 돈은 그와 같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또한 안식일에 물건을 사거나 여행을 즐기는 자들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들로 말미암아 오락장이나 상가들은 문을 열게 됩니다. 일요일에 오락장이나 상가를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그들은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사교, 팔고, 교환하고 그와 같은 일을 조장한다면 패역한 이스라엘 자녀가 될 것이며 이 계명과 다른 계명을 어긴 범법의 무서운 결과는 우리에게 영원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율법에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엄중한 형벌에 관한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이 현재보다 그 당시에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할 중요성은 우리의 시대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다음의 계시에서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 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교성 59:9)

이 계명은 “너희는 …할지이다”의 계명임에 유의해야 합니다.

“진실로 이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그러나 날마다 어느 때든지 네 서약을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또 이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이다.”(교성 59:10-13)

주께서 안식일의 중요성과 그것을 올바르게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중에, 그는 그의 백성에게 “날마다 어느 때든지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고 요구하신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계 각처로 여행을 하는 동안 안식일을 잘 지키는 충실한 성도들을 보았고, 안식일에는 소를 몰지 않는 목축업자와 평상시 과일철에는 밤낮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으나, 안식일에는 문을 닫고 있는 과일 판매대를 발견했으며, 잡화상, 음식점, 가두 판매대도 주일에는 휴업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들 업자들은 안식일날 일하지 않고도 잘 살고 있으며 동시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진정한 만족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훌륭한 자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신앙과 신념에 감탄하여 마음속으로 크게 즐거워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안식일에…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의 입의 말이니라”(사 58:13-14)

*



스티브 길리랜드

말일성도 신학 연구원
대학부 책임자, 매사추세츠

말일성도는 주일날에 근무하는 직장을 가져서는 안 됩니까?

“이 회사는 교대 근무를 합니다. 누구나 일요일에 교대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라고 감독이 말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를 심히 원하고 있는 말일성도인 종업원은 생활비를 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장을 찾기로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의 훌륭한 직장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는 이 문제로 고민해야 합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해야 하는 직장이라면, 다른 직장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이 문제는 보다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도 계속되어야 할 필수적인 일이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 즉 병원 직원, 구급차 운전수, 경찰관, 소방대원은 매일

하루 종일 근무해야 합니다. 만일 버스나 택시 회사가 일요일에 문을 닫아 버린다면 이러한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 갈 수 있을까요? 호텔에서 일하는 자들에 관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행자들이 일요일 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어디서 머물러야 합니까? 어떤 직장은 일요일에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일이 비회원에게만 맡겨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각종의 훌륭한 직장에서 그들의 동료와 그들이 봉사하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훌륭한 말일성도들을 필요로 합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문제는 언제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일은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일요일에 일해야 하는 나의 상황은 불가피한 것인가?”

우리의 결정이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일지라도 그와 같은 결정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영감과 지시를 주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요일에 일하도록 요구하는 직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고도 될 수는 다른 방도는 없을까? 나의 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을까?

만일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면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지는 않을까? 일요일의 당번을 다른 사람과 바꿀 수는 없을까?

만일 이 직장을 그만둔다면 나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고 교회에 참석하는 데 직장을 주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다른 직장은 없을까?

내가 비록 일요일에 일을 하더라도 시간을 내어 일요일 모임의 일부 또는 모든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와드는 없는가?

나는 게으름에 대한 핑계로 나의 직장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과 함께 이 문제에 관해 토론하고 주님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결정하고 주님께 서 인정하신 그 결정이 주일날에도 일할 것을 요구하는 그러한 직장에서 계속 일하거나 그러한 직장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면 성령이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야 하며, 이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비난하는 성도를 용서해야 합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음 제안은 말일성도에게 도움이 되었던 제안입니다.

1. 안식일에는 특별한 영적인 예배로 그날의 일을 시작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기혼자라면,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행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그들의 안식일을 토요일 저녁에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여행할 동안에는 경건이나 교회 서적을 읽으십시오. 벨기세텍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를 개인적으로 연구한다면 신권회에 참석할 수 없는 형제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만일 여러분의 일이 운전과 같이 최대의 정신 집중을 요하는 것이어서 그러한 서적을 읽을 수 없다면 카세트 테이프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차 대회의 말씀이나 경건을 녹음해 둔 테이프는 대부분의 집회소 도서실에서 빌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여러분이 일할 때 작업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경우에도 안식일에 적합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근무 중에 근처에 있는 안식일 집회에 참석해야 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5. 보통 때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할 기회를 찾고 더욱더 친절을 베푸십시오. “오늘 내가 이곳에서 일해서는 안 되는데.” 하며 불평하는 태도를 취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죄스럽게 여기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6. 선교사로서 일하십시오.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종교적인 토론을 잘 받아들입니다. 간증을 하십시오.

7. 가능한 한 교회의 모든 모임이나 그 일부라도 참석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때때로 여러분은 작업복을 입을 채 집회에 참석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작업복을 바꾸어 입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8. 병원에서 수련의로 일하는 사람은 그가 일요일 당번일 경우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병원으로 나오게 하여 식사를 함께 할 수도 있으며 한 구석에서 몇 분간 경전을 읽고 복음을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들의 일요일 공과를 복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원이 아닌 다른 직원을 불러 일요일에 그들과 함께 병원에서 식사를 함으로써 모범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은근한 모범은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9. 어떤 형제는 일요일에 그가 출장중이라도 가족 기도를 결코 빠뜨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가족들은 전화 수화기에 둘러 모여 그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10. 주 중의 다른 날에 더 많은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갖습니다.

11. 휴식 시간이나 한가한 시간에 경전을 읽고 명상합니다. 휴식 시간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함께 경전을 읽고

토론합니다.

일요일에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에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불평했던 사람들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열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앉아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라고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나에게서 커다란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나는 12시간을 일한 후에도 내가 참석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말일성도의 모임에 참석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주 중의 다른 날에 그들의 가족과 함께 특별한 예배를 가집니다.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주 안식일의 경험을 갖기를 원하는 이러한 충실한 성도들은 나로 하여금 내가 비록 일요일에 일하지 않을지라도 그날을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만큼의 특별하고 영적인 날로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더욱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일요일에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훌륭한 안식일을 갖도록 돕는 것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인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가정 복음 교사나 친구는 신권회와 성찬식 모임의 말씀을 적어 두었다가 후에 그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일요일에 일하는 직장을 피하십시오. 교회 회원으로서 일요일에 일하지 않으면 안될 사람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께서는 우리들을 마음의 상태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조언을 충실히 구할 때 우리들을 인도하

시며 우리가 의롭게 생활할 때 우리를 도와 삶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같이 안식일도 인간을 위해 제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그의 도움을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안식일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



로버트 제이 매튜
브리감 영 대학교
고대 경전과 책임자

성경상으로 볼 때 안식일은 제칠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킵니까?

안식일에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날은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안식의 날뿐만 아니라 예배를 위한 거룩한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은 “휴식하다” 또는 “그만 두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샤밭”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에는 휴식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의미에서의 휴식

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힘을 갖기 위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이 단순한 계명은 특별한 날에 평일의 세상적인 일을 멈추고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날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다른 날의 세상적인 일과 비교되는 영적인 일과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다.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밭 이삭을 자르는 것을 보고 비난했을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에게 휴식의 날로 주어진 것이며 또한 이날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사람이 먹지 말아야 하는 날은 아니니라

“인자가 안식일을 제정하였으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니라”(막 2 : 25-27 영감역)

이 성구는 안식일에 대한 실제적인 견해를 말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의 복합성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 안식일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2) 안식일은 휴식의 날입니다. (3) 안식일은 예배의 날입니다. (4) 예수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대에도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은 언제인가? 안식일은 영원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성서에서는 안식일은 “영원한 언약”(출 31 : 13-17 참조)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동일한 날에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 있다 기보다는 오히려 안식일은 영원한 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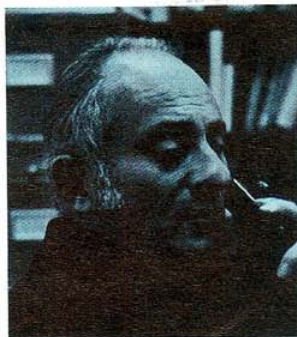
약, 즉 영원한 의미를 지닌 날임을 뜻합니다. 이날은 모든 세대의 인간에게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구의 내용으로 보아 그러한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성경상으로 볼 때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제칠일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안식일은 “주의 날”(계 1: 10)이라고 불리어져 일주일의 첫째 날(행 20: 7)로 지켜졌습니다. 이날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는 주님은 예배의 날을 “나의 거룩한 날”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계시는 1831년 8월 7일 일요일에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졌습니다. (교성 59: 9-10)

전통적으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교리와 성약 59편에 따라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인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중동에 있는 교회의 몇몇 지부는 그 국가의 관습에 따라 일요일이 아닌 다른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교회 회원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에 모임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며(막 2: 23-28 참조) 또한 안식일의 목적은 개인의 휴식을 위한 날인 동시에 영적인 교훈과 공공 예배를 위한 날이므로 안식일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는 때에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느 날에 안식일을 지키느냐라기보다는 그날을 어떻게 왜 지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의 신자들이 매주 동일한 날에 갖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로부터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에 이르기까지 12대 교회 대관장 모두가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것은 가장 효과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프로그램은 성신권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예언자요, 선지자요, 계시자이며 지상의 주님의 대표자이신 교회의 대관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세워진 안식일에 대한 예외가 필요할 경우에는 합당한 신권 역원이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



엘리올 디 란다우
주일학교 본부 임원
어린이 위원회 위원장

어린이가 아직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는데도 성찬을 취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어린이가 얻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8세 미만의 어린이는 “죄지를 수 없으며 저들이 성장하여 내 앞에서 책임을 깨닫게 될 때까지는 어린 아이를 유혹하는 능력을 사탄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였”(교성 29: 47)지만, 어린이에게 성

찬을 듣게 하는 것은 교회의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1) 세상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2)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생각하며, (3)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교성 84 : 44)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어린이에게 성찬을 듣게 하는 것은 그들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회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어린이가 성찬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관찰 기록에 의하면 인간의 태도, 습관, 성격 등과 같은 그러한 일들과 관계되는 성장 과정은 유아기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음과 같은 견해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어린이는 가정에서나, 교회 예배에서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영성인 면에서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려는 시도는 대단히 효과적으로 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의 영적인 일에 관한 반응은 그들의 지적 이해를 초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어린 아이가 “책임을 깨닫게 될” 연령에 이르기 전에 그의 도덕적인 선택에 대한 영적인 감응과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도덕적인 순진성은 영적인 무능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는 그가 기도를 반복하고 듣고 하는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을 때, 특히 기도하기 바로 전에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

도에 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져 볼 수도 없는 종교적인 교훈은 가장 세심한 주의와 반복을 통해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이같이 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시간이 극히 짧기는 하지만, 성찬을 취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며, 예수는 특별한 분이시고, 성찬식에서의 떡과 물은 어느 정도 자신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임을 느낄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하는 것은 단계적인 것이며, 일시에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하고, 그를 통하여 축복을 받는 보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그 기초는 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년 주일학교 예배와 성찬식에서, 어린이들은 성찬을 취하는 그들의 가족과 그들보다 나이가 든 형 또는 언니들을 봅니다. 유아기부터 8세에 이르기까지 매주 반복되는 이 성찬식은 그들이 이 경건한 사람들을 본받아 경건하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찬을 드는 것은 그들이 후에 갖게 될 생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한 힘찬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발전적인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취하는 어린이는 비록 그들이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구원의 교리에 관해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영은 영에게 말하며, 태도는 태도를 생성해 냅니다. 어린이들이 성찬을 취할 때 성인들이 얻는 것과 같은 영적인 것을 얻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은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 되라

주일 모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슨 스코트 카드



친구가 세상을 떠나자, 그는 비로소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 “나는 입원해 있는 브리안을 찾아보려고 했었습니다.”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화요일 밤에는 가정 복음 교육을 해야 했고, 수요일에는 위원회 모임이 있었었습니다. 목요일은 나의 개인 신권 접견이 있었으며, 아내는 그것이 끝난 뒤에 곧 아내가 맡은 쾰벌만원에게 운동 연습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성찬식에서 할 말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토요일 아침에 브리안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형제님과 아빠가 친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 데

요.” 하는 목소리가 수화기에서 울려나왔다. “형제님도 아시고 싶어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고 싶어 하다니?” 후에 그가 한 말이었다. “나는 아는 것보다 더한 것을 원했습니다. 나는 시계를 늦추어 놓고, 달력을 뒤로 돌려 놓고서라도 단 몇 시간을 내어 병원에 가서 그와 함께 옛날을 이야기 하고, 그리운 친구들을 생각해 보며 죽기 전의 그에게 탁친 마지막 고통과 두려움 또는 외로움을 위로해 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 일에 너무도 바빴습니다.”

이 경험으로 그는 어떤 교훈을 얻었다. “교회 일에는 열심이면서도 복음에

는 등한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참석하는 집회는 준비를 위한 것이다.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 교회 활동의 일부만이 되어야 한다. 집회는 우리가 활동적이 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다.

복음 활동은 우리 가정에서나 친구와의 사이에서나, 직장이나 사회나 낯선 사람들 틈에서나, 혼자 기도할 때에 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은 집회에 참석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교회는 여러 면에서 활동 기회를 만들어 준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들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훌륭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정원회 지도자는 그들의 형제들이 훌륭한 활동을 하도록 조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참석 기록이 우리가 충분히 활동적임을 나타내고 있음에 만족하며 거기서 중지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둔 종과 같다고 볼 수 있다. 교회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기회를 마련해 준다. 우리는 그 기회를 영화롭게 할 책임을 갖고 있다.

만일 우리가 집회소내에서만 선한 행위를 한다면,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미치는 것이 되는가?

만일 우리가 레위인이나 제사장과 같이, 너무 교회 일에 열중하여 낯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면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가?

안식일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쌓고, 수리하고, 강화시키며 우리의 육신을 쉬게 하여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완전하게 복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날이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찌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고전 13:2)

해설: 내가 충실하게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하고, 모든 부름을 다 이행하며, 매달 첫주 중에는 가정 복음 교육도 하고, 모든 면에서 적극적인 교회 회원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성도가 되지 못한다. 이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며, 내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날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 주일 동안 적극적으로 주님과 그 자녀들을 섬겼는가?)

안식일은 집회에 참석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의 영을 나누며, 주님께 봉사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 남은 6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같이 해야 한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25:35-36)

우리 주위에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교회에 적극적으로 되려면, 우리는 바른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불행한 사람들을 보살피야 한다. 우리가 이웃에게 베푸는 은사는 곧 주님께 베푸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취할 때 그 성찬에는 우리가 단지 조용히 앉아 그리스도에 관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찬은 회개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 네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바치라...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교성 59: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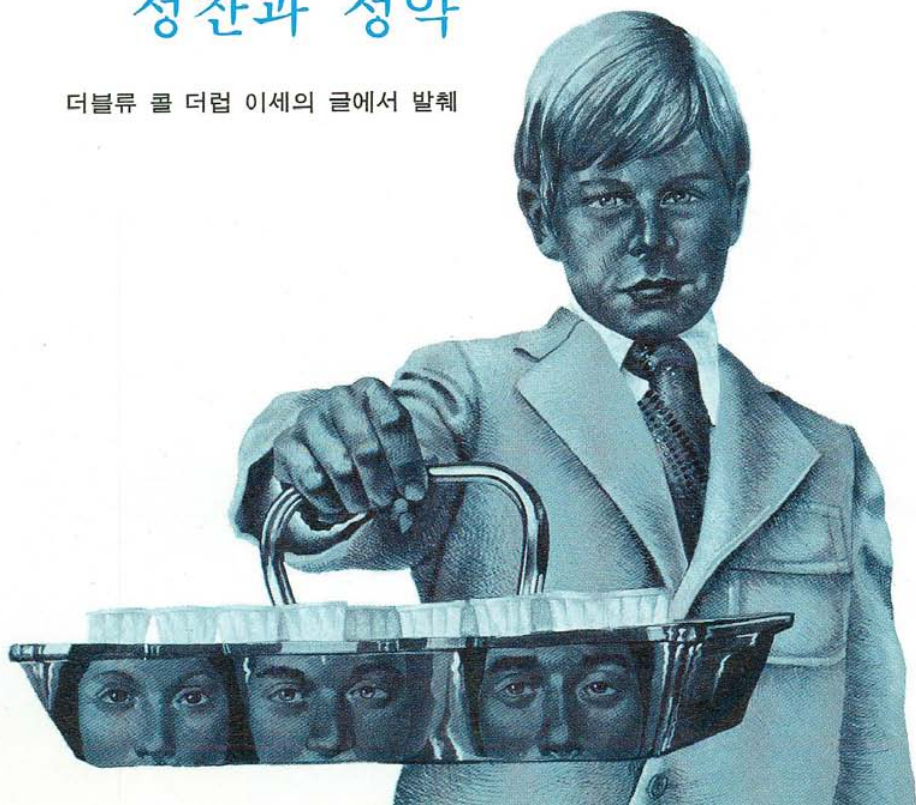
만일 우리들이 개인적이고 특별한 헌물, 즉 구세주로부터 분리된 데서 온 약점을 극복하겠다는 약속을 성취하려

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찬을 취할 때 그 성찬은 우리의 생활에서 보다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구속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더 하고자 주어진 것입니다. 성찬이 최초로 행해졌을 때부터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기념하여 성찬을 들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구세주께서는 다락방에서 열 두 제자에게 명하셨습니다. (눅 22: 19) 우리의 와드와 지부에서 매주 성찬을 축복하는 제사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몸을 기억하여 먹게 하

성찬과 성약

더블류 콜 더럽 이세의 글에서 발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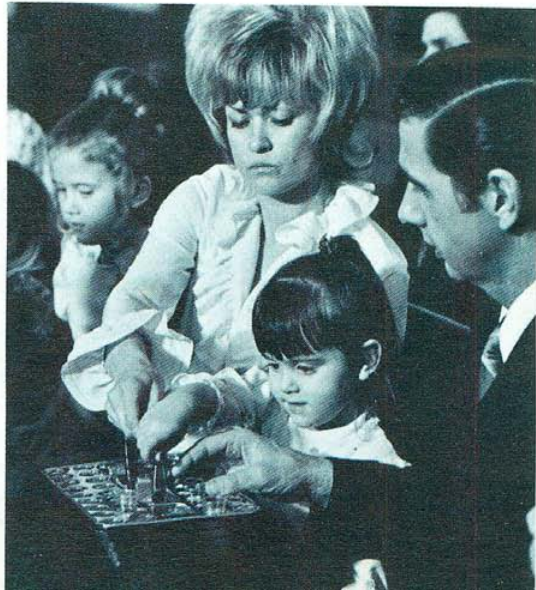


소서.” 또한 “저희들을 위하여 흘리신
당신 아들의 피를 기억하여 마시게 하
소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
저희들이 항상 그를 생각함을 당신 앞
에 증거하게 하시고”(교성 20 : 77-79)

그러면 우리는 진정으로 어떻게 그리
스도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성찬은 우
리가 구세주에게 보다 가까와지도록 어
떤 기회를 줍니까? 첫째, 성찬 기도
에서 말해지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
다는 개념인데 이것은 우리가 구세주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아는 데 도움을 줍
니다. 우리는 그의 교회에 들어갈 때 그
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으로 불리어집니다. 우리가 그리
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것은 그것보다 더
힘듭니다. 침례의 성약으로 “우리는 그
리스도의 자녀”가 되며 “영으로 나오
셨”음을 받았읍니다. (모 5 : 7) 그의 이
름은 “구원을 주시는”(모 5 : 8) 유일
한 이름이며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권세를 언제나 깨닫게 되고 그것을 증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 성찬의
언약을 적극적으로 지킨다면, 우리는 영
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개인적인 행동과 더욱 큰 다짐으로 우
리의 성약을 새롭게 해야 할 중요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완전한 의미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매주 두 번
갖는 성찬식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이
상의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면
을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약은 성
찬에 의해 새롭게 되며 궁극적으로 우
리는 우리의 “영육을 주 앞에”(음 26)
드릴 것을 요구하므로 놀라운 것이 아
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찬 그 자체를
일주일 간격으로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는 완전한 기간으로 나누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큰 부담
을 느끼게 됩니다. 성찬은 주께서 우리



의 손을 붙들어 주며 우리의 영혼을 다시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짐을 덜어 주며 그의 길로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생각해 봅시다. 성찬은 성약의 한 과정인 기억과 약속을 되새기는 한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잘 기억하고 약속을 되새길 수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용이하고도 기계적인 대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에서 성찬의 권세를 크게 드높일 수 있는 단순한 일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과 성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항상 그를 기억할” 것을 “아멘”으로 정직하게 동의하기 위하여 모임 전에 충분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주 드리는 뜻깊은 기도와 경전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구세주를 기억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서 자신을 채우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도 없고 기억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더우기 우리는 다소 특별한 약속을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한 가지 효과적인 방법은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30분 동안 경전을 읽고 나서 지난 주에 우리가 한 약속을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간구하고, 다음 7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한꺼번에 모든 일을 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마음을 그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쏟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처음에는 서서히 내려지는 주님의 지시를 받아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될 때 우리는 성찬을 취하면서 특별한 약속을 “바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속을 적어 두는 것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지하게 성약을 하는 과정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으로 행하는 길을 갑자기 순조롭고 평이하게 해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성약을 보다 명백히 하거나,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약점을 보다 잘 알게 되고, 우리의 죄의 짐은 더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낙심만으로는 적절한 답변이 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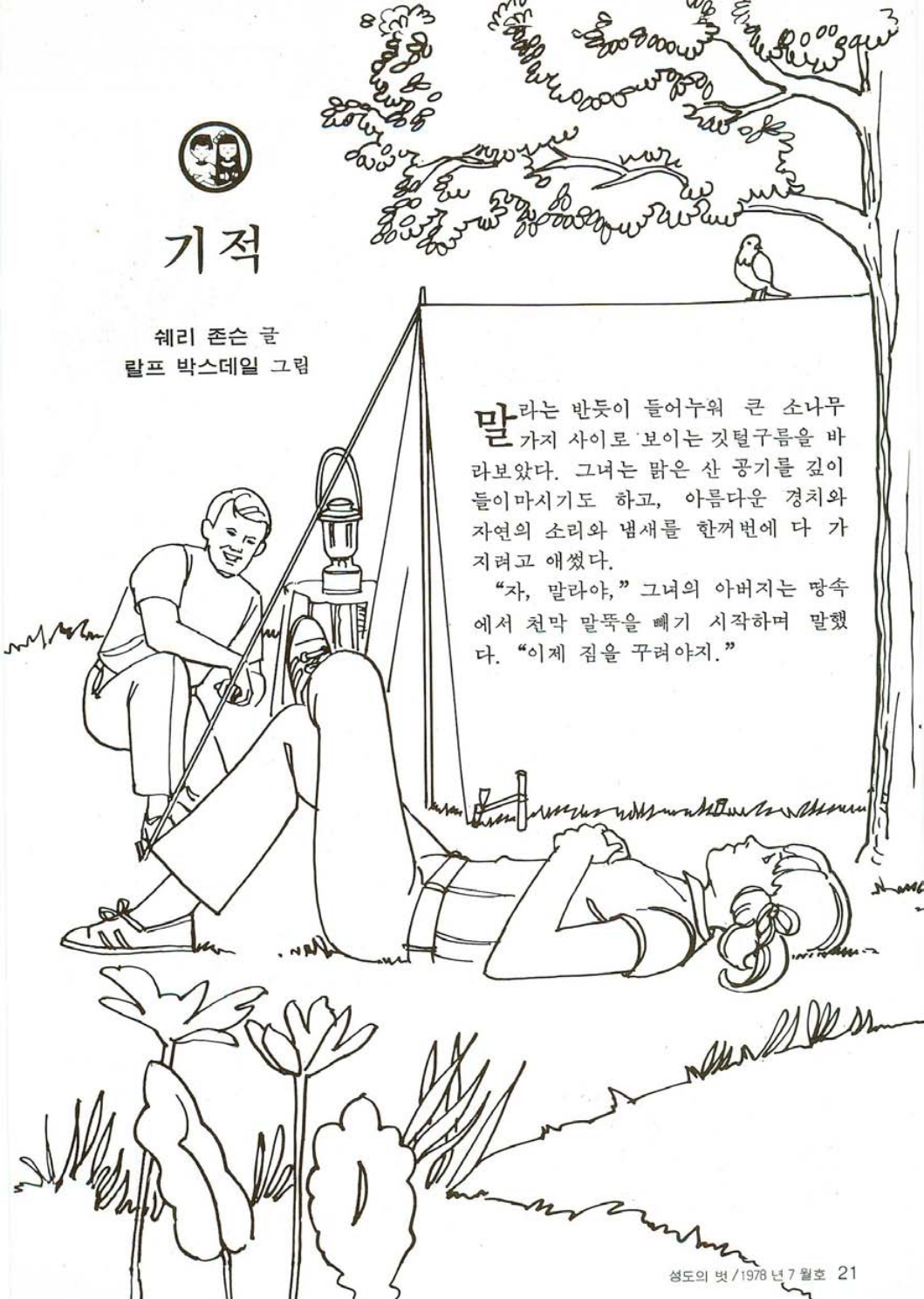
반면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키우고 구속과 주님의 자비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성찬은 매우 위안을 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실수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매주 재확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생활에서 구속을 자신의 약점에 적용할 때 구세주는 단순한 정신적인 반성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원히 인식하게 되며 우리는 죽음보다도 더 강한 유대를 주님께 맺게 됩니다. 회상이라는 정신적인 의사 표시로 시작되는 영의 인도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구세주와 완전히 일치되게 하는 능력을 궁극적으로 갖게 해줍니다. *



기적

쉐리 존슨 글
랄프 박스데일 그림



말라는 반듯이 들어누워 큰 소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깃털구름을 바
라보았다. 그녀는 맑은 산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기도 하고, 아름다운 경치와
자연의 소리와 냄새를 한꺼번에 다 가
지려고 애썼다.

“자, 말라야,” 그녀의 아버지는 땅속
에서 천막 말뚝을 빼기 시작하며 말했
다. “이제 짐을 꾸려야지.”

“어떻게 하면 야영을 실컷 해볼 수 있을까요?” 딸이 물었다.

“나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안타깝기만 하구나.”라고 아빠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이제 끝내야 하고 네 도움을 받아야겠다.”

“꼭 5분만 더요.” 하고 딸아가 간청했다. “이런 것들을 겨울 동안 내내 기억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빠도 짐 꾸리기를 멈추고 딸아가 바라보는 쪽을 함께 바라보았다. “더 빨리 가서 얼마 부엌 일을 도와 드려야지.” 하고 아빠가 일러 주었다.

“조금만 더요.” 하고 딸아가 다시 말했다.

“좋다. 그럼 나도 같이 즐기자꾸나.”

“좋아요.” 하고 말하며 딸라는 담요 한쪽을 폈다.

“너는 무얼 바라보고 있는 게냐?” 아버지도 그녀 옆에 누우며 물으셨다.

“깃푸른 소나무와 푸른 하늘의 친구들과 그 사이로 날아다니는 새들의 소리예요.” 딸아가 단숨에 말을 했다.

“그건 기적이야.” 아빠가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딸아가 아빠를 바라보았다.

“자, 주위를 둘러보렴. 이것이 모두 하나님님의 큰 계획의 일부란다. 모두 각각 그 기능은 다르지만, 하나의 큰 우주를 만들기 위해 작용한다.”

딸라는 푸른 하늘에서 배처럼 떠가는 구름을 지켜 보며 그것에 관해 생각했다. 드디어 딸아가 말했다. “정말이에요. 그것이 기적인 것 같아요. 참으로 위대한 기적이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조용히 이루어져 그 계획이 기적임을 잊을 때가 많아요.”

딸라는 한꺼번에 경험한 여러 가지 아

름다운 생각과 광경과 소리로 마음이 벅차 오르는 듯이 느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아빠가 물었다.

“그건 쉬워요.” 하고 딸아가 대답했다. “하늘이에요. 하늘이 끝없이 언제나 변하는 모습을 보세요. 오늘은 파란색이다가도 때로는 흰색이나 회색이 될 때도 있어요. 하늘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는가 하면 밤이 되면 별이 빛나기도 하지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란 말이나?” 하고 아빠가 물었다.

딸라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자, 이미 5분이 지났구나. 짐을 꾸리면서 생각해 보고, 대답이 생각나면 다시 이야기해 보기로 하자.”

“예, 아빠.” 하고 딸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했다. 딸라는 담요를 접으시는 아버지를 도와 드렸다.

곧 그들은 야영에서 집으로 돌아왔으나 딸라는 야영 여행에서 아빠와 나눈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학교에 오고 갈 때 기적을 찾았다. 모든 것이 기적과 같이 보였다. 자동차나 비행기까지도 인간이 만들어 낸 기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나뭇 가지에 달린 나뭇잎의 색깔이 변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아빠에게 말씀드리려 허겁지겁 달려갔다. 거기서 집까지 가는 동안 그녀는 줄곧 뛰었다.

“어머니! 어머니! 가장 위대한 기적이 무엇인지를 알아냈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며 외쳤다. “아빠 어

디 제셔요? 내 생각이 옳은지 알아보
고 싶어 그래요.”

“뒤뜰에 제시다.” 어머니가 대답하였
다.

말라는 책가방을 책상 위에 내려 놓
았다. “나는 삼 주일 동안이나 찾아 오
던 걸 이제서야 알아냈어요. 아빠에게
말씀드리겠어요.”

“너무 급히 서둘지 마라.” 어머니가
주의를 주셨다. “그렇지 않으면 아빠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알아

들으신다.”

“가장 위대한 기적을 알아냈어요.”
말라는 아빠에게 미처 인사도 드리기
전에 이야기부터 했다. “계절이에요.
그렇죠...나뭇잎 색깔이 변하고, 눈이
오는가 하면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 가장 위대한 기적이어요.”

아빠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건 훌
륭한 기적이다. 아주 훌륭한 기적의 하
나일 제다. 그렇지만 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아빠는 말하였다.

“그렇다면 기적이 너무 많지 않아요.”
하고 말라가 투덜거렸다.

아빠는 말라를 껴안아 주었다. “기적에 대하여 여태까지 생각하고 있었다니 참 훌륭하구나. 계속 살펴보면 옳은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게다.” 아빠가 달래 주었다.

말라는 전보다 더욱 굳게 다짐했다. 그녀는 하늘이나 계절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무엇일까 하고 몹시 궁금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다음 토요일날 그녀는 정말 열심히 찾아보았다.

“귀찮게 끌지 마, 스노이야.” 그녀는 그녀의 주의를 끌려고 다리를 살살 간지럽히는 고양이에게 말했다. “나는 위대한 기적을 찾고 있는 중이란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으나, 스노이가 장난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아차렸다. 고양이도 안뜰을 뛰어넘어 창문 속으로 들어가 말라도 고양이 뒤를 따라가 보았다. “어머나, 스노이!” 하고 그녀는 외치며, 무릎을 꿇고 자신이 본 것을 좀더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예쁜 고양이 새끼를 낳았구나! 엇저녁에 태어난 게로구나.”

말라는 스노이가 새끼들을 활아 주며 젖을 먹이고 있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감탄하며 지켜 보았다.

“다섯 마리의 새끼가 모두 너를 닮았구나.” 털뭉치같이 생긴 새끼가 눈을 뜨려고 애쓰는 것을 보며 말라가 말했다.

그때 아빠가 저쪽에서 오셨다. “이것 보세요!” 말라가 가만히 소리쳤다. “이것이 바로 기적일 것 같아요.”

아빠는 창가에 기대어 들여다보시며 웃으셨다. “출생도 기적의 일부이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그렇지만 새로운 생명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린 제이슨이 태어났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전날만 해도 없었던 제이슨이 어느 날 우리 식구가 되었잖아요. 그건 기적이었어요.”

“그렇지, 정말 그렇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그러나 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 있단다. 너는 그 해답에 아주 가까이 다가왔어!”

“얼마나 가깝겠지.” 말라가 물었다. “아주 가깝게요?” 아빠가 웃으면서 대답하셨다.

말라의 얼굴은 알 수 없다는 듯 찌프러지더니, 갑자기 환히 퍼졌다.

“알았어요!” 그녀가 외쳤다. “우리는 출생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아빠가 동의하셨다. “그러면 그 나머지 기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낼 수 있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라가 모든 기적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기적을 자신이 알아낸 일이 무서운 듯 눈을 빛내면서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라는 것이지요?”

“맞았다!” 아빠가 말라를 꼭 껴안으시며 말씀하셨다. “너와 제이슨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이듯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란다. 너는 지금 얼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듯이,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단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함께 하나님과 다시 살 수 있단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기적이란다.”

말라는 마음이 무척 호뭇하고 즐거웠다. 가장 위대한 기적을 알았다는 데에도 가슴이 벅찼으나, 그것을 혼자서 알아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다. *



세계 어린이들의 간증

내 이름은 쟀마 이잔느 데이비슨이에요. 나는 영국 썬리주, 미첼에서 살고 있어요. 엄마는 내가 네 살 때 교회에 들어오셔서, 나는 여덟 살 되는 생일날에 침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낡은 건물에서 교회 집회를 가집니다. 나는 글쓰기와 피아노치기를 좋아해요. 나는 내 친구 게이노를 초등학교에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의 부모님은 그 애가 곧 침례를 받도록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해요. 지금은 또 다른 친구를 초등학교에 데려오고 있는데 그 친구도 역시 교회에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제가 간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이 경은, 한국, 서울

나는 가족과 함께 지역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해밀튼에서 예언자를 보았고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와 그의 아내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기 전의 날씨는 매우 나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므로 대회를 위해서 좋은 날씨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킬코비치, 프리루아, 뉴질랜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에이미 알로피포, 아피아, 서 사모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 계시며 그분들이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이 지상을 만드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신권은 축복이요, 큰 권능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즐기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에릭 스톡스, 아피아 웨스턴 사모아

그녀가 따뜻한 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니다. 어떤 훌륭한 일이 벌어질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장로님의 팔을 붙잡고 물 속으로 잠기자, 흰 가운이 물 속에서 날쌔거렸습니다. 그녀는 거품 속에 잠긴 듯이 느꼈으며, 얼른 일어났습니다. 환히 비치는 빛 속에서 그녀는 한결 가쁜해졌습니다. 그녀는 옷을 바꿔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자신이 침례받은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나왔습니다. —지지 미드, 켈캐리, 앨버타, 캐나다

28페이지에 계속



어떻게 말할까?

교회에 관해서
선생님에게는?

1

내가 불민인
이유를 어떤 사
람만이 내게 풀
어 주는가?

2

내가 믿는 바
에 관해서 비
회원 친구에게
는?

2

어떻게
말할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말하는가?

1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말하는가?

3

유의 사항 : 잡지에서 이 페이지를 잘 떼어 내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그
려진 모양대로 자르되, 점선에 따라 잡고, 자른 면이 서로 맞닿는 곳은
테이프로 붙인다. 두 개를 함께 테이프로 붙이면 십이면체가 된다.
이 게임은 가족이나 친구가 동굴에 앉아 다른 사람에게 공을 던진다. 공
을 잡았을 때 공의 맨 위에 있는 면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이 답

어떻게 행동할까?

1
 내가 사는 전교사가
 내게 있는 친구를
 소개하는
 목적을 위해

1
 주일학교 교사가
 나에게 비회원 친구를 교
 회에 데리고 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행동할까?

3
 내가 전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면?

3
 1. 100원
 2. 100원
 3. 100원
 4. 100원
 5. 100원
 6. 100원
 7. 100원
 8. 100원
 9. 100원
 10. 100원

2
 1. 100원
 2. 100원
 3. 100원
 4. 100원
 5. 100원
 6. 100원
 7. 100원
 8. 100원
 9. 100원
 10. 100원

해야 한다. 옳은 답을 말할 때는 한점을 얻게 된다. 공을 다른 사람에게
 쳐서 질문에 답하게 한다. 같은 답을 되풀이하면 안된다. "어떤 말을 할
 까요?"가 맨 위에 올라올 때는, 공에 들어 있는 어떤 질문에 대답해도
 된다. 게임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오래 계속할 수도 있다. 이 게임
 이 끝났을 때 가장 많은 점수를 딴 사람이 우승자가 된다.

세계 어린이들의 간증 (25페이지에서 계속)

나는 여름 방학 동안에 할아버지를 찾아 뵙기 위해 어떤 산에 올라갔다 내려 오다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는 매우 놀랐으나 바로 그때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눈을 떠 보니, 길이 보였습니다. —노리유키 후지와라, 토야와 지부, 일본

우리 훈련 비행사반 교사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초등학교에 친구를 한 명씩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그것에 관해 말씀드리고 우리 이웃을 초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르크는 초등학교에 나간 뒤부터 더욱 즐거워하여 그의 어머니는 집회에 빠지지 말고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초등학교에 나갈 수 있는 친구를 찾을 수 있게 도와 주셔서 우리 가족은 매우 기뻐합니다. —게오르그 폰 알멘, 바젤, 스위스

나는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교회의 가르침에 관해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초등학교와 주일학교에서 교회에 관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류카스 메틀러, 스위스

어느 날 두 분의 장로님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며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감동했습니다. 얼마 후에 우리 가족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침례탕에 들어갔을 때, 나는 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거룩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예배당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찬송가와 피아노 연주를 듣고 마음이 기뻐하며, 합창곡은 더욱 그러했습니다. 세월은 참 빨리도 지나갔습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복음에 관해서 좀더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린 웨이 웨이

어느 날 나의 피아노 선생님이 내가 말일성도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셨습니다. 피아노 공부가 끝난 뒤에, 선생님은 레몬수를 한컵 주시면서, 어떻게 그 장로들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선생님께 내가 물몬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장로들이 며칠 전에 자기 집 문도 두드렸으나,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교회도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신앙개조 제1조를 암송했습니다. 나는 또한 거룩한 숲에서의 요셉 스미스 이야기와 어떻게 그분이 교회의 첫번째 예언자가 되었는가를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 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피아노 교습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지혜의 말씀에 관하여 이야기하자, 그것은 참 훌륭한 법이며 그 법을 지키면 우리 몸도 건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복음에 관해서 피아노 선생님께 이야기 할 때 정말 기쁩니다. 선생님은 아주 좋은 분이시며 언젠가는 선생님도 교회 회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 브림, 벨지움 *

한해 극복 특별 금식일

지난 5월 21일 안식일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모든 한국 성도들은 두 끼니를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시어 풍년이 들도록 기원하는 특별 기도를 전국 곳곳에 있는 교회에서 드렸다.

이날 미 8군 영내에 있는 미군 지방부 전 회원과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펴고 있는 350여 명의 미국인 선교사도 금식 기도에 참가했다.

서울 스테이크 최옥환 스테이크 부장은 이 특별 금식일에 로렌조 스노우 대관장 재임시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고난을 겪을 때 많은 성도가 회개하고 십일조를 정확히 바치니 비가 내리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교회사를 인용하면서 가뭄이 계속되는 때에 십일조의 법을 지키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겸손한 생활과 모든 생필품과 식수까지도 절약하여 비축하는 국민이 될 것을 권고하였다.

말일성도들의 금식하는 목적이 문화 방송과 텔레비전을 통하여 전국에 알려졌다.

신임 감독 / 지부장단 소개



서울스테이크

제 5 와드

감독단

감독 : 박 재 암
제 1 보좌 : 민 신 흥
제 2 보좌 : 최 석 구

ADVERTISEMENT

Can You Have a Happier Family Life?

This eight-page Detachable Section: Describes four qualities many parents miss in their family lives. Offers a way to measure your family by these qualities. Suggests a general plan for a happier family life. Reports a specific example of the plan in action. Tells why we prepared this Guide.

You know what the world is like today. Jet-propelled. Computer-driven. A world of instant everything. Little time for anything deep, enduring—like, a family. A happy family. Besides, a lot of Americans are saying, "Haven't you heard? The family has gone out of style. Divorce rate up, birth rate down, part-time fathers, working mothers, unwed couples—everything's falling apart."

But despite what they say, the family is still the bedrock of American society. For example, 47 million families in the United States today are husband-and-wife families, with 23 million children under 13. Moreover, 67% of all American children

(Continued next page)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The Mormon)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에 우리 교회가 소개되다

5천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월간지 리더스 다이제스트 78년 4월호 영문판과 독문판에 우리 교회가 소개되었다.

8페이지를 잡지에서 떼어 낼 수 있도록 편집된 이 교회 소개 소책자 내용은 "당신은 좀 더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 없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여, 가족강화 점검표,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 계획,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 소개, 이 소책자를 퍼내게 된 목적 등의 순으로 엮여져 있다.

오는 6월, 9월, 12월호에도 계속 구체적인 교회 프로그램을 소개할 계획이라 한다.



“우리 가정의 소망은 선교 사업”

전 서울 스테이크 고등평의원

최 인빈

저는 1971년 12월 18일에 침례를 받았읍니다. 가족으로는 본인과, 아내(유금옥 자매)와 두 딸과 한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침례를 받기 전에는 참으로 암흑 속을 헤매는 나날을 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은 후부터는 주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 왔읍니다.

저의 가정은 개종 이후 지금까지 22가정 117명을 교회에 인도하였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모두 선교사다. 걸음의 폭을 넓히자”라는 김블 대관장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고 노력한 결과였읍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대속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웃을 교회로 인도한 것은 우연에서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3년 전 저의 아내를 개종시킨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내를 개종시키는 것은 가장 쉬운 일이면서 한편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개종시키는 데는 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읍니다. 그것은 제가 침례받기 전 35년 동안 남편으로서 본분을 못했고, 폭군과 같은 가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교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저의 인격을 증오함으로써 복음을 거부하고 의식적으로 선교사의 방문을 피하기 일쑤였읍니다.

침례를 받은 후부터는 저의 교회의 가르

침에 따라 가장으로의 모범을 보이고 복음의 참됨을 진심으로 간증드리고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침내 아내는 변화된 나의 모습에 감명을 받아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과 아내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렸읍니다.

아내가 침례받은 후부터는 저의 가정에 기쁨과 삶의 참뜻이 꽃피게 되어 우리 가정은 명실공히 지상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두 자녀를 침례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선교 사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117명 외에 12명의 구도자를 선교사에게 소개시켜서 복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정은 항상 다음의 경전 귀절을 기억하여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온 생애 동안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로 이끌어 오면 저와 더불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맛볼 너희 기쁨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일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의 내게로 데려온 단 한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그처럼 클진대 많은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게 될 때면 너희 기쁨은 얼마나 더 크겠느냐?”

(교성 18 : 15~16)

*



복음의 빛

상계지부(귀환 선교사)

최 윤환

1977년 12월 선교부장의 이동 지시를 받고 여수로 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경험했던 것과 같이 새 지역으로 갈 때마다 새 기분으로 가야했습니다.

여수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는 회원이 이 곳에 살고 있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분은 몇 년 전 아버님과 사업 관계로 친구가 되어서 서울에 있는 우리 집에 자주 방문 하시면서, 우리 가정이 물론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차차 그분도 이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한 동안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다가 비활동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도착 하자마자 곧 동반자와 함께 그분의 가정을 방문 하였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때 우리를 반가이 맞아 주셨지만 어딘가 서먹서먹한 빛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동반자와 저는 열심히 주님께 그 형제님과 그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그분이 다시 활동적인 성도가 되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할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수개월 동안 열심히 방문하여 그분의 가족과 우정 증진을 했습니다.

한번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난 후 그분의 가족 모두를 개종시켜야 한다는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형제님께 아주 진지하고 겸손히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면서 막내 아들 영호와 함께 복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드렸을 때 처음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결국 우리의 제안을 받

아들이고 영호를 가르치도록 허락했습니다.

영호가 복음 공부를 할 때마다 그 형제님은 항상 함께 참석 하셨으며 다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영호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이 기회를 통하여 이 가족 모두가 물론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매일 간구하였습니다. 드디어 영호에 이어 그의 누이가 침례를 받게 되자 그 형제님은 다시 활동적인 회원이 되었으며 그때부터 그 형제님의 자매님도 복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자매님이 침례를 받을 날을 얼마 남겨 두지 않고 선교사의 임기가 끝나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지만, "가족 모두가 교회의 회원이 되어 우리 가족은 주 안에서 더욱 강하게 뭉쳐지며 너무도 많은 주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간증하신 그 형제님의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형제님은 현재 지부장단 보좌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는 가족은커녕 그분마저도 구제할 수 없으리라 생각 했지만 주님의 도움으로 그분의 가정을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선교 사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느끼게 되었으며 제가 그동안 전한 복음은 참되며 주님은 살아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

우리는 이 시대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은 보지 못했으며 몇 개의 떡과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국에서 윌포드 우드럼 장로의 설교에 감화되어 수천 명이 교회로 들어오는 기적을 알고 있으며, 뉴욕의 어느 숲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방문을 받았던 기적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와 적당한 시기에 맞게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신의 조용하고 미묘한 역사는 단지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미친다는 사실은 어느 시대에도 공통된 현상입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과 함께 하는 특별한 경험을 축복으로 받았으며 이러한 것이 바로 병고침과, 예언과, 기도의 응답과 생활에서의 변화, 꿈 등과 같은 필요한 기적인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1,500년 전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적의...하나님을 보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누가 이르겠느냐? 사도들의 손으로도 많은 능력의 기적이 베풀어졌느니라.

“또한 기적이 전에 행하여졌을진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셨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느니라. 변하셨다면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셨을 것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며, 기적의 하나님이시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느니라”(골 9: 11, 18-19)

오늘날 대부분의 기적은 은밀하게 일어난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가족 가운데서 일어나며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끼리 이것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들은 금식 간증회에서 감사와 신앙의 표시로 그것을 말합니다.

거의 모든 간증회 때마다 그러한 경험을 듣습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경험이 쌓여서 오늘날 교회에서의 놀라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성령으로

현대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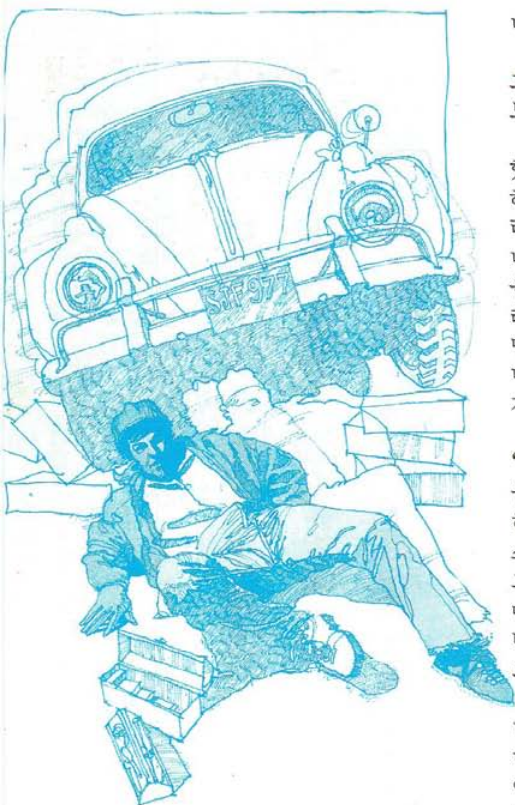
우리의 이웃은 간증회에서
매달 그들에 대해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이 에이 패리

주어진 경험은 오늘날 지상의 성도들 가운데서 흔히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불신앙에 빠지며 바른 길에서 떠나 저들의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골 9: 20) 자만이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여러 가지 기적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시켜 줍니다.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며 필요할 때에는 직접으로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아마 가장 흔히 말해지는 기적은 영감의 기적일 것입니다. 어느 젊은 형제 한 사람은 최근에 영감이 그의 가족을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간증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엘로스토운 공원을 여행하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행 도중 어느 휴게소에 들려 휘발유도 넣고 휴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매우 연세가 많으셔서 시력이 극히 나빴습니다. 그는 휴게소로 들어가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유리문이 열린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들어가시다가 유리창이 깨져 팔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동안 나는 할아버지의 출혈을 막으려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나에게 간호원에게 가서 이곳에 물론 장료가 있는지 물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있으면 할아버지를 축복하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해서였습니다. 내가 간호원에게 묻자 이곳에는 물론이라고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걸어오면서 ‘저는 대체사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과 아버지는 축복을 하신 후 그가 병원을 떠나려고 했을 때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은 이곳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나요?’

‘아니오, 이곳에는 아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곳에 오지게 되셨나요?’

‘내가 차를 몰고 이웃 동네를 통과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제사는 그의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나는 나의 차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이 차 밑에서 빨리 나가라!’ 나는 그 차 밑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곧 차를 바치고 있는 지주가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라면 차에 깔려 죽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지켜 주신 데 대해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 교회는 참된 교회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요셉 스미스는 예언자이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단순히 내가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사실임을 나타내 보여 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영감의 기적과 비슷한 것은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 원칙에 대한 새로운 이해나,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암에 걸린 어느 유타의 자매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우리의 어린 토마스를 위한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앙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이란 단지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이란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매가 어려운 때에 성신의 영감을 느꼈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다른 성도들도 응답된 기도를 통해 주님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그녀의 18개월 된 꼬마에게 있었던 끔찍한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기가 욕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기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급

히 욱실로 달려가 보고는 질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미끄러져 머리를 욱조에 심하게 부딪쳤던 것입니다. 머리는 커다랗게 멍이 들고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나는 로니를 안고 침실로 달려가 그를 눕혔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겨우 몇 마디 기도를 드렸을 때 평화와 안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마쳤을 때 로니의 머리는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멍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기적을 사용하신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세상을 이용하시는 것과 같은 것

입니다. 한 자매가 간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저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 준비하면서 그 일을 위해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앉아 우리의 새로운 생활을 위해 철저한 예산을 세우다가 우리는 필수품조차 충분히 마련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걱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로저를 선교사로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뒷일을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로저가 떠나기 전날 나의 남편 회사의 사장은 남편을 사무실로 불러 그들이 즉시 남편에게 임금 인상을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인상액을 종이에 적어 남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금액은 한 푼도 틀림없이 로저를 선교사로 내보내는 데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또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 17-18) 병고침은 회복된 교회의 매우 참된 면이며 많은 사람들이 금식 간증회 모임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한 연세가 많으신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증에 걸려 숨이 차서 몇 발자국도 제대로 걸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전에 나는 신전에서 인봉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시다. 나는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신전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직책에 임직되었을 때 그들은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건강을 축복하였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축복이 이루어졌습시다. 나는 신전에서 그러한 일을 하도록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제는 테니스를 4회전까지 했지만 끝까지 지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게임을 모두 이겼습시다.

주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성도들에게 지식과 위안을 권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로 남편의 권위 의식 때문에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었던 한 자매는 그녀가 가진 나쁜 느낌을 그녀가 해결하도록 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한 아름답고 품위있는 여인이 나에게 나타나서 내게 인내하고 사랑스러운 자매가 되라고 하였고 아놀드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태도를 고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꿈은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그 꿈이 잊혀지지 않았습시다. 나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며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후 어느 날 우리가 오랫동안 기

다렸던 아놀드의 조상의 사진을 받았습시다. 그것은 우리의 계보에 붙이기 위해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가운데 아놀드의 모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놀드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모친께서 아놀드가 7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놀드의 어머니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꿈속에 나타났던 그 여인은 바로 아놀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꿈속에서와 같이 때로는 장막이 거두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다른 방법으로 그들과 교통할 수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57년간 사신 후에 돌아가셨습시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곧 나는 할머니를 방문해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종종 나타나시나요?’

“할머니는 묘한 표정을 지으시며 ‘그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에게 할아버지께서 종종 나타나셔서, 이를 전에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기도를 마치고 할아버지가 그녀의 침대 옆에 나타나셨던 때를 생각하며 침대에 누웠습시다. 할머니는 ‘나도 베리고 가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흔들며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소.’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많은 이야기를 하신 후 떠났다고 합니다.

“그후 얼마 되지 않아 그때는 다가오야 말았습시다. 우리는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으나 운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신 것이 슬펐지만, 할머니께서 그다지도 바라시던 사랑하는 분에게로 가셨다고 생각하니 슬픔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역시 기적입니다. 이것은 구세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가능할 뿐입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내가 부모님과 나 자신을 괴롭힌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죄

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가 아닙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나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마약을 복용했습니다. 나는 인생이 즐겁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내가 극도로 비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잠시 멈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도님이 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고.

“내가 그러한 생활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나는 훌륭한 새 친구들과 이해심이 많으신 감독님과 성신의 도움없이 결코 개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나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가 얼마나 불행했던가를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회개와 의로운 생활이 행복을 가져다 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심을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진실로 기적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금식 간증회 때마다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의 신앙은 다른 성도들의 영적인 경험에 의해 강화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 마음속에 늘 잊고 생각할 수 있는 경험이 수없이 많습니다. (눅 2: 19 참조)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어…기적이 그친 것이냐?”라고 물문은 질문하고 스스로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신앙으로 인하여 기적이 이루어지며, …만일 이러한 일이 그쳤다고 하면 인간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는 불신앙으로 말미암음이요 만사가 헛됨이라.

“그러나 보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온유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졌으며 너희가 보다 나은 자들임을 내가 아노라.”(모로 7: 27, 37, 39)

구세주께서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하셨습니다. 1970년대의 말일성도들은 매 10년 마다 신앙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진 교회를 통하여 매월 갖는 간증회에서 말해지는 기적, 영적인 체험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말일의 계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참으로 그 밭이 시온의 땅을 딛고 있어 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하늘에서 축복으로 관을 쓰게 될 것이요, 저들이 필요할 때에 적지 아니한 계명과 계시를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 앞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한 자”의 신앙과 필요에 따라 기적이 나타날 것은 분명합니다. (교성 59: 3-4) *



금식- 기쁨을 주는 은사

세릴 콘디 캄튼

금식이라는 복음의 원리가 그렇게 지
키기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
년 전에 나는 정규적인 금식의 법을 실
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같이 새롭게
다짐하면서 나의 금식을 좀더 의의 깊
게 하고, 주님께 좀더 기쁘게 되
고, 내 자신의 영성을 발전시키는 데 보
다 강력한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심했다.

금식 주일이 되었다. 나는 토요일 오
후부터 일요일 오후의 간증 모임이 끝
날 때까지 금식하기로 결심했다. 토요
일 저녁 나는 어떤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모임에서 다과가 베풀어졌다. 나는
계획을 바꾸어 토요일 밤부터 일요일 밤
까지 금식하기로 했다.

이튿날 아침, 서둘러 세 딸아이에게
조반을 먹여 주며 주일학교에 보낼 준
비를 하다가, 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
이에 손가락에 묻은 꿀을 먹고 빵 조각
을 입 안에 털어 넣고 있음을 알았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인식하자,
크게 실망이 되어 그날은 금식을 포기
했다.

나는 실패를 보상하기 위해 주 중에
하루를 택하여 금식하려고 마음먹었으

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한 주일을
보내고 또한 한 달을 보내게 되었다. 그
렇게 하여 또다시 금식 주일을 맞이하
게 되었다.

이번만은 사정이 달랐다. 스펜서 더
블류 김블 대관장께서 교회 회원들에
게 일부 지역에서 흑인과 눈 속에서 떠
는 자들과 기근에 허덕이는 자들을 위
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다.
나는 수십 만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예언자가 요구하신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큰 감동을 받게 되었으며, 그
감동으로 나는 금식할 수 있었다.

나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실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그날도 여느
주일날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으나, 금
식이 중요한 것이라면 무언가 다른 점
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내가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나는 금식의 원리와 실천에 관해 알기
위해 경전을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경전을 읽어 나가다가, 나는 현대의
예언자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금식
에 대한 지침을 읽었다. 그곳에는 금
식일을 합당하게 지키는 것은 계속해서
두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간
증 모임에 참여하여, 아낌없이 금식 기
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명백
히 나타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또 올바른 방법대로
행하기를 간절히 바란 나는 내가 연구
한 말씀을 실천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나는 금식의 법을 알았으며, 내가
그 법을 문자상에 나타난 외형적인 면
에서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그러나 진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정신이
다. 나는 금식의 정신을 알기 위해 다
음과 같은 다섯 가지 면에 중점을 두기
로 결심했다.

1.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
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는

어느 때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을 사랑하려는 생각을 품기조차 힘들 때도 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이 점에서 나의 가장 큰 사랑조차도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은사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2. 희생과 봉사의 정신. 금식 기금은 이 정신의 하나의 표시이며 다른 표적은 기꺼이 나의 간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나는 또한 내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이야기할 기회를 부지런히 찾아야 한다. 때로 나는 참다운 희생이 무엇인지 이해하지조차도 못한다고 느낄 때가 있다.

3.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형제애와 우정의 정신. 나는 내가 금식을 할 때는, 이 시간에 다 함께 금식하는 교회 회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는 단합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다.

4. 하나님과 교통하는 마음. 매달 하루만은 나는 모든 일상사를 제쳐 놓고, (아직도 자기 일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세 자녀를 돌보는 일을 제외하고는) “단순한 생각”으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내 육신의 성정을 정결케 한다.

5. 자제하는 마음. 나에게 있어서, 금식하면서 나의 의지를 단련시키고자 하는 것은 겸손의 표적이며,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맡기고, 영적인 힘과 육신의 자제력을 강화시키기를 바라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보다는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것을 뒤우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나는 금식했다. 처음에는 나를 괴롭힌 특별한 유혹을 내가 물리칠 수 있도록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그것은 유혹을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유혹을 그치게 했다. 나는 죄를 물리쳤을 뿐만 아니라, 죄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이같이 나는 축복을 받는 것이다.

나는 한 달 동안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나의 성장을 위하여 곧 금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내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금식하고 기도했다. 신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여러 주일 동안 고심하고 있을 때였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니 갑자기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 떠올랐으며, 그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았으므로 조금도 망서리지 않았다.

금식을 마치고 나면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때로는 내 육신이 내게 더 없이 성스럽게 생각되어, 깨끗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것은 먹고 싶지 않았다. 마치 금식이 우리에게 어떤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을 공급해 주며, 어떤 음식이 우리의 신체 조직을 더럽히는가를 알게 해주는 듯했다.

나는 보다 명백하고 간결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내가 신전에 갈 때는 그 목적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금식을 할 때는 기운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했으나, 보다 큰 인내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도 했다.

나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더 없이 친절해졌으며 사랑과 감사로 충만해짐을 느꼈다. 나는 성찬식에서 더욱 많은 눈물을 흘리며 영적인 감명을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 그것은 그 모임이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서적, 영적으로 더욱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금식의 결과로 내가 받은 그 밖의 중요한 축복은 악한 영향과 유혹을 인식하고 과감하게 그것을 물리쳐 버리는 능력이 증가된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금식하려고 노력하는 중에, 내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을 발견했다. 여기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 가족이 함께 금식한다. 신권 소유자가 보여 주는 모범에서 힘과 동기를 얻도록 하며 서로 도운다. 나이가 어려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할 수 없는 자녀는 단지 금식의 정신을 깨닫게 하며, 기도하

고, 경전 이야기를 배우고, 찬송하고, 받은 축복을 세어 보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계획을 세운다.

2. 다른 사람을 위해 특별히 봉사하고 희생하는 계획을 세운다. 항상 아낌없이 금식 헌금을 바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타 봉사 행위에 관해서 영감을 받도록 한다.

3. 미리 세심하게 준비하여 신체적인 작업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한다. 내게 있어서 이것은 자녀들에게 어떤 옷을 입히며 어떤 음식을 주느냐를 미리 계획하는 것을 뜻한다. 나는 또한 금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토요일에 자녀들을 위한 합당한 일요일 활동을 준비한다.

4. 하루나 무리하게 인내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한다. 여유있게 계획하여 서두르지 않고 교회 집회에 참석할 수 있게 한다.

5. 진심으로 기도할 시간을 계획한다. 이것은 세 어린 딸들이 무슨 일이거나 나와 함께 시간을 갖기를 요구하고 있으니, 지금의 나로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때로 가족이 함께 기도한다. 아이들이 낮잠을 자거나 잠이 든 동안에 남편과 함께 기도드린다. 또한 사람이 아이들을 보아 주면 다른 사람이 혼자 기도드리기도 한다. 내가 간절히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한밤중이다.

6. 특별한 목적이나 축복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한다. 이것에는 개인적인 필요, 가족 문제, 어떤 사람을 위한 축복, 교회 전체나 국가가 포함되는 문제, 기상 상태의 변화를 위한 금식 같은 것이 포함된다.

7. 죄의 회개, 변화되기 위한 힘을 구하고 변화되려는 방법에 대한 영감을 구한다. 배상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내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 용서를 받도록 한다.

8. 경전을 읽고, 연구하고, 생각해 본다.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을 깊이 이해하고자 한다. 남편에게서 내가 의문나는 점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한다. 주제별로 또한 계속해서 경전을

읽는다. 자녀들이 경전을 알고 사랑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한다.

9. 하나님을 찬양한다. 주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표시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부른다. 내가 주님과 맺은 관계를 기뻐한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과 주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간증한다.

10. 사회적인 갈등과 혼란을 피한다. 토요일 밤의 결혼식 피로연, 파티, 만찬, 스포츠 및 일요일 저녁 만찬 등은 금식과 영적인 교통에 큰 방해가 될 것이다.

11. 일지에 나의 경험을 적는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내가 회개하고 변화를 위해 계획한 것, 내가 읽은 경전에 대한 설명, 내가 봉사하려는 계획, 매달 내가 금식하는 목적 및 나의 간증 등을 적는다. 우리가 정규적으로 일지에 그러한 기록을 하면, 그것은 우리의 간증을 강하게 하고, 변화를 위한 지시와 동기를 부여해 주며, 우리의 자녀와 또한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는 강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기적 같은 일은 재빨리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나, 우리가 일지에 기록한 것은 그것을 명백하게 되살려 주고, 계속적인 기적의 생활인 영생을 추구하게 한다.

나의 금식이 아직은 완전한 의미에서의 “기쁨과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년 전보다는 훨씬 그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우리는 그의 자녀이며, 주님은 우리가 기쁨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제 나는 금식이 그러한 기쁨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확신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약점을 제거시키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강화시키고,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금식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

교회의 활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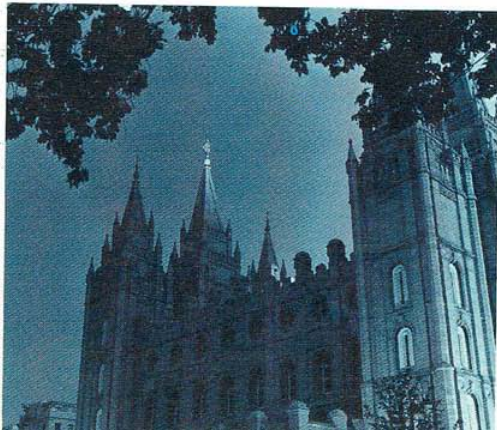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킴블 대관장께서 십이사도 평의회 의원으로 계셨을 때 한 무리의 선 교사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그는 간증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간증을 행하는 것은 우리만이 행하는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의 근본 요소가 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초등협회와 주일학교에서

간증한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것이며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간증을 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그들은 그것이 참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간증은 단순히 어떤 사실의 추적



이 아니라, 느낌입니다. 간증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기초적인 것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전체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부장단이 함께 하는 자리나, 회원들이 모인 작은 그룹이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간증하는 곳에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 십이사도는 가정에서도 간증을 합니다. 내가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일해 온 지 18년 반 동안, 우리는 4개월에 한 번씩 간증 모임을 갖았습니다. 우리 열 두 사람 혹은 본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아침 일찍 신전으로 가서 4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 갑니다. 이 방에는 열 두 개의 오래된 가죽을 씌운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오래된 것입니다. 적어도 반세기 이상 사도들이 사용해 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죽이 닳아 벗겨지긴 했지만, 아직도 편히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자들은 반원형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곳에는 서기도 참석합니다.

스미스 대관장이 한쪽 끝에 앉고 가장 연세가 낮은 사람이 다른 쪽 끝에 앉습니다. 노래도 부릅니다. 리 형제가 울개를 연주하거나, 그가 지휘를 하고 내가 울개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그 울개는 발로 발판을 눌러서 연주하는 조그만 풍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뒤에 지난번 모임 기록 낭독을 자세히 듣습니다. 그 모임 기록을 읽는데 15분 내지 20분쯤 걸립니다. 그것은 매우 감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석달 전에 형제들이 한 간증을 다시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십이사도 회장이신 스미스 대관장께서 일어나셔서 경전을 손에 들고 우리에게 펼쳐 보이시는데, 그것은 흡사 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우리들 중에 두 사람이 성찬을 축복하고 그것을 서로 전달합니다. 그런 다음 간증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3~4시간 동안 열 두 사람이 모두 간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증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며 교회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십이사도가 서로 간증을 하여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주님께 감사를 나타낼 필요가 있다면, 선교사들은 역시 그들을 지지해 주고, 이끌어 주며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 계속 해서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는 간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집무에 들어 갑니다.

“또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연차 대회가 열리기 전 목요일에 다른 간증 모임을 갖습니다. 모든 총관리 역원들이 신전에 있는 대관장단과 십이사도실에 모입니다. 맨 위에 대관장이 앉습니다. 주님의 예언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그 의자에 앉지 못합니다. 대관장이 안 계시실 때, 보좌들이 모임을 이끌 때라도, 그들은 항상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성찬은 두 형제들이 축복하는데, 대개는 십이사도 중의 두 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간증을 합니다. 축복사와, 관리 감독단에서 한 분, 칠십인의 한 분, 십이사도 보조의 한 분, 십이사도에서 한 분 이상 및 대관장의 세 분이 모두 간증을 합니다. 이 모임은 주님의 예언자의 간증으로 끝납니다. 이 모임은 참으로 영화로운 모임입니다.

예언자께서 일어나서 ‘나는 그것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응답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잊지 못할 경험이 됨을 여러 분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간증은 선교하는 데만 사용되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교회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강하고 힘찬 것입니다. 이것은 조직의 활력소이며 교회의 활력소가 됩니다.”(더 베르린 스피릿, 1962년 1월) *

선교사의 복음 토론만이 반드시 사람들을 복음으로 개종시키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찬 쿠누셀의 경우를 보면 오랜 동안에 걸친 단순한 친절함 행위가 그로 하여금 물몬이 되는 것에 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게 하였다. 1856년에 놀웨이에서 출생한 크리스찬은 14살이 되었을 때 그의 외삼촌이 물몬 선교사로 유타에서 놀웨이로 돌아왔다. 그는 크리스찬의 부모와 가족에게 교리를 가르쳐 침례를 베풀었다. 그러나 크리스찬만은 예외였다. 그는 학교에서 국교를 신봉하도록 교육을 받아 온 터라, 가족이 모두 교회에 가입하자 이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후에 그가 기록한 것으로, 현재 교회 역사과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기록에서 발췌한 다음 기사는 16세 된 청년기에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킨 경험을 말해 주고 있다. 크리스찬이 쓴 기록에서 철

자법과 어법상 틀린 것을 고치고, 그의 개종 경험을 다루지 않은 것은 삭제하여 그의 이야기를 좀더 자연스럽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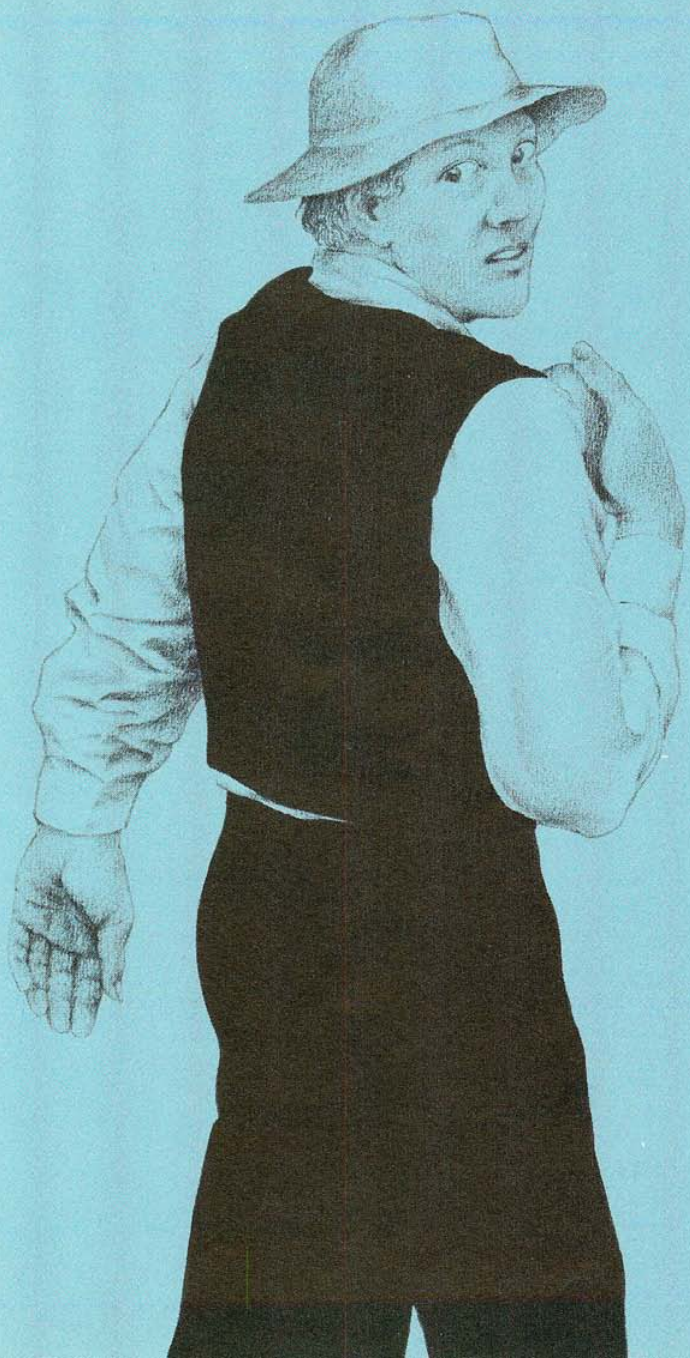
1870년에 어머니의 남동생인 몬스 안더슨이 물몬 선교사가 되어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그 지역에 사는 장로들을 데리고 와, 그들은 우리 집에서 집회를 가졌다. 얼마 후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교회에 개종했다. 얼마 안되어 그들은 유타로 함께 이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나로서는 문제가 달랐다. 나는 교구 목사의 학교에 다녔으며, 그곳에서는 성경이 필수 과목으로 되어 있었다. 장로들은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의 해석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 냈는데, 그것은 나를 개종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물몬 교리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

크리스찬의 개종

고든 어빙 편

프레스톤 하이셀 그림





게 하였다.

그후 나의 부모는 우리 집을 팔고 유타로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감정이 좋지 못해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나를 설득 시키려 했다. 그럴수록 나는 더 남아 있을 것을 원했다. 나는 우리 집이 팔려 내가 남아 있을 집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우리 집을 산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 우리는 마지막날 밤을 이웃 사람의 집에서 지내야 했다. 나는 결국 약 90마일쯤 떨어져 있는, 놀웨이의 수도인 크리스차나 (현재의 오슬로)까지 가족과 함께 가기로 동의했다. 그래서 1872년 6월 18일, 우리는 유타주로 향해 고국을 떠났다.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17세인 누이 아그넷, 15세인 나, 12세인 마티아스 및 8세인 여동생 크리스티네 등 모두 여섯 명이었다. 한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에 음식과 의복, 침구류를 넣은 상자를 실어 올리고, 세 사람이 올라 탔다. 상자 가운데는 매우 큰 것도 있었으나, 그는 결국 그것을 모두 실었다. 남은 사람은 걸어가야 했다. 그것은 놀웨이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우리는 7마일 가량 여행하여 피사라는 내륙의 호숫가에 다달았다. 거기서 우리는 조그마한 기선에 올라타 45마일쯤 떨어져 있는 에이스볼이란 곳으로 갔다. 그곳은 놀웨이의 헌법이 제정된 곳이었다. 나는 전에 기차를 한번도 본 일이 없었으므로, 무척 신기하게 여겼다. 길게 뻗친 철로 위를 기차가 어떻게 달릴 수 있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했다. 어쨌든 우리는 기차를 타고 수도인 크리스차나에 닿았다.

이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조금 이야기 해야겠다. 앞서 말한 대로 나는 그곳까지 가족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었다. 역에 내린 우리는 오스터하우스가 덴가 27번지에 있는 물론 노르웨이 선교 본부로 갔다.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들은 홀에서 집회를 가졌는데, 부모님은 나도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나는 참석할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그것은 아직까지 좋지 않은

감정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부인이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 아들이라면, 발복에서 피가 나도록 때려 주겠는데.” 나는 그 부인이 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내가 그 부인보다는 훨씬 빨리 될 수 있으므로 나를 따라 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곳까지는 오게 되었다. 가족들은 내가 링사케에 있는 집을 떠나기 전에 한 말을 알고 있었으며, 누이인 아그넷까지도 내가 가지 않으면 자기도 더 이상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모자 상점에 가서서 마티아스와 나에게 훌륭한 갈색 모자를 사 주셨다. 부친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으나 슬픈 듯이 보였다. 부모가 슬퍼하시는 것을 보자, 나는 성경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났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나는 그들과 함께 가기로 결심했다. 가족은 크게 기뻐했으며, 나는 그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하루나 이틀 뒤에 우리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을 향해서 떠나는 조그만 기선에 올라 탔다. 나는 물론 교회의 회원이 아니었으므로, 노래도 부르지 않았고 다른 사람처럼 즐거운 느낌을 가질 수는 없었으나, 노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즐거워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지금도 “오 바빌론 오 바빌론 이제 떠나서 에브라임의 땅을 찾아가겠네.”라는 찬송가를 잘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것은 놀웨이어로 불리어졌다. 우리는 기선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날 코펜하겐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누울 자리가 없었으므로, 나는 곡식 푸대 위로 올라가서 누울 자리를 찾았다. 내가 그 위에 올라가 한잠 잘 자고 있는 동안, 가족들은 나를 찾아 못해 결국 찾기를 포기하기까지 했다. 그들은 내가 가지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가족들이 한 말은 아니지만, 나를 보았을 때 그들이 한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내

가 바다에 뛰어 든 것으로 생각했음이 틀림없다. 어떤 사람이 가족들에게 내가 무사하다고 말했을 때 그들은 하늘에라도 뛰어오를 듯이 기뻐했다. 가족들은 나를 직접 볼 때까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내가 가족들을 그렇게 기쁘게 해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우리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도착하여, 유타로 갈 사람들이 300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사망하기 직전까지 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보좌로 있었던 안톤 에이치 렌드 장로가 유타로 가는 일행을 인솔했다. 우리는 코펜하겐을 떠나 북해를 거쳐 영국의 헐 항구로 갔다. 우리가 출발하자 날씨는 쾌청했으며, 놀웨이어에서 떠날 때처럼 성도들은 춤을 추기까지 했다. 그러나 곧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기 시작했다. 얼마 되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뱃전으로 몰려 이리저리 쏠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물고기의 밥이나 되지 않았을까! 나는 그들을 우습게 생각하며 어찌서 그런가 하고 이상하게 여겼다. 나도 오랫동안 웃고 있지는 못했다. 곧 나도 그 지경이 되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 탈 없이 안전하게 도착했으며, 기차를 갈아 타고 리버풀로 향했다. 우리는 거기서 여덟 시간 가량 기차로 달린 뒤에, 북미의 뉴욕을 향해 가는 기선 네바다 호에 올라 탔다.

우리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14일이 걸렸다. 가다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였으며, 줄곧 배멀미로 시달렸다. 그러나 우리는 뉴욕에 무사히 상륙했다. 거기서 우리는 유타로 향하는 기차를 탔다. 4일 후인 1872년 7월 17일 저녁 늦게 우리는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했다. 역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 일행의 인솔자인 안톤 에이치 렌드 형제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역에 도착하면, 많은 사람들이 마중나온 친척과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들 중에는 우리를 집으로 데려가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들 중에는 여러분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자 할 분들도 있겠지만, 따라가시면 안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연회장으로 가서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연회장으로 모시고 오십시오.”

때는 저녁 10시경이었다. 그 집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두 한꺼번에 식탁에 앉을 수 있을 만큼 큰 곳이였다. 당시 우리는 약 300명 가량 되었다고 생각된다.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들어갔다. 나는 교회 회원이 아니므로 들어가는 안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몬이지만 나는 물몬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더욱 비참한 기분이 되었다. 그때 렌드 형제가 나와서 내가 혼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부모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었다. 나는 가족들은 모두 연회장으로 갔지만 나는 교회 회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물가로 데리고 가서 덴마크 말로 “자 들어가. 괜찮다.”라고 했다. 나는 권유에 못이겨 그곳에 들어갔는데 참으로 내가 생전 보지도 못한 훌륭한 만찬이었다. 온갖 좋은 것이 다 나와 있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식사가 끝났지만, 식탁에는 아직도 맛있는 음식이 가득 쌓여 있었다. 우리는 마음껏 집어 먹을 수 있었다.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를 초청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므로, 아침이 될 때까지 그 연회장에서 머물렀다. 다른 식구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식탁 옆의 의자에 누워 깊이 잠들었다. 내가 잠에서 깨어 났을 때, 해는 높이 솟아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도 일어나 서성거렸다. 식탁에는 아직도 먹을 것이 잔뜩 쌓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배불리 아침 식사를 했다.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차린 것이니 마음대로 들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나는 전날 밤처럼 아침 식사도 실컷 먹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몰랐다.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랐다. 드디어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덴마크 말로 그를 따라오라고 했다. 그는 우리를 오래된 십일조 창고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는 친구와 얼마간의 음식물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었다. 거기서 우리는 다음날 밤을 지냈다.

그날 나는 밖으로 나가서 솔트레이크시티를 구경하리라고 생각했다. 때는 여름이었는데, 6월의 조생종 사과가 한창 익어 가고 있었으며, 먹음직스런 사과가 눈에 띄었다. 나는 그것을 달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허락도 받지 않고 사과를 따 먹는다던, 그것은 돈을 훔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둑질을 하는 셈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먹음직스런 빨간 사과가 담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몸을 굽혀 그것을 집어 들고 길로 달려 나가기 시작했다. 몇 걸음 앞 배어 놓았을 때 어떤 사람이 “거기 있었거라!” 하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놀웨이어로도 “스툼”은 같은 뜻을 의미하고 있었으므로 나는 그가 놀웨이 말을 하는 줄로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멈추어 섰다.

그러나 그는 집 뒤로 돌아갔다. 나는 다시 가기 시작했으나, 그는 내가 가는 것을 본 모양이었다. 그는 집주위를 둘러보고는 다시 “멈추어 서라!”고 외쳤다. 나는 말없이 사과를 가졌으므로 가슴이 몹시 두근거렸다. 나는 그가 나를 때릴 회초리를 가지러 간 줄로 생각했으며, 내가 놀웨이에 있다면 어찌했을까 하고 상상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는 회초리 대신에 그의 모자에 먹음직스런 빨간 사과를 가득 담아 왔다. 내가 묻가로 다가가자, 그는 나에게 한 아를 가득 사과를 건네 주었다. 그는 무어라고 영어로 내게 말했지만 나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는 그것을 내 의투에 달린 커다란 주머니에 집어넣으라고 손짓으로 표시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사과가 가득 담긴 모자를 나에게 주었다.

나는 그 일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받았다. 내가 사과를 하나 훔쳐 갔

는데도 때리기는 커녕 모자에 사과를 가득 담아 주다니, 앞에서 나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으나, 이일과 전날 밤에 연회장에서 영접받은 일로 비참한 기분이 싹 가셨다. 어느 것보다도 더욱 훌륭한 설교가 된 셈이다. 행동으로 보여 주는 것이 열 마디 말보다 나은 것이다.

나는 오래된 십일조 창고로 가서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과 만났다. 사과를 가족들에게 갖다 줄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기뻐다. 가족들은 내가 어떻게 사과를 얻었는지 궁금하게 여겼다. 가족들은 내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했다. “너 이커 훔친 게로구나.” 나는 “저기서 어떤 사람이 주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들은 유타에 있는 사람들이 놀웨이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다. 나 역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의삼촌인 몬스 안다슨은 우리에게 리하이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져와 말했었다. 그날 저녁에 한 어부가 리하이를 경유해서 가게 되었는데, 우리들 중에 두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와 남동생 마티아스가 그와 함께 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남은 우리를 찾으러 올 것이다. 당시 철로가 포인트 어브 더 마운튼까지만 놓여 있었기 때문에 기차로는 그곳까지 갈 수 없었다. 그래서 뒤에 남은 우리는 그 다음날까지 십일조 창고에서 머물렀다. 온종일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날인 1872년 7월 20일에 마티아스 피터슨이란 사람이 새 마차를 가지고 리하이에서 우리를 데려왔다. 우리는 쉼 듯이 기뻐다. 우리는 샌디라는 곳까지 와서 밤을 지냈다. 다음날,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인 1872년 7월 21일에 우리는 리하이에 도착했다.

이제는 1872년 7월 21일 일요일에 대하여 잠시 말해야겠다.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샌디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는데, 우리는 떠나기 전에 무언가 먹어야 했다. 우리는 모두 다섯 사람이었는데, 구운

빵이 조금있었을 뿐이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농가가 있었는데, 마부인 마티아스 피터슨이 빵과 곁들여 먹을 우유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그리로 갔다. 그는 이내 돌아왔으며 그와 함께 한 부인이 신선한 우유를 한 그릇 가득 담아 왔다. 그렇게 하여 나는 야영하면서 빵에 신선한 우유를 곁들여 먹은 첫 경험을 하였다. 정말 얼마나 맛이 있었는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참으로 감격했다. 이렇게 맛 있는 우유를 갖다 주신 부인은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나는 그 부인이 물몬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른다. 그러나, 당시 나는 유타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물몬이라고 생각했으므로, 그 부인도 물론 물몬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하여 물몬교에 대하여 좀더 호감을 갖게 되었다.

11시경에 우리는 몬스 안더슨의 집에 다달았다. 그러자 크리스틴 안더슨 자매가 나와 맞아 주며 한 사람씩 끌어안고 환영해 주었다. 내 차레가 되었으나, 그런 것에 익숙치 않던 나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러나 어쩔지 달아나고 싶지는 않았다. 한 무리의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이 우리에게 물려와서 우리와 악수를 나누었다. 나는 영어를 한 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하고 추측했을 따름이다. 주일학교에 갔던 어린이들이 곧 집에 도착했다. 그들 역시 우리에게 입맞춤을 했는데, 그때쯤 되어서는 나도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다. 그들은 정말로 우리를 마음 편하게 해주었다.

내가 구도자가 되는데 도움이 된 다른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다. 때는 딸기니 구즈베리니 조생종 사과 등이 한창 무르익어 가고 있었다. 안더슨 자매를 만나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 인품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고 있다. 외숙모는 이렇게 말씀했다. “가서 네 마음대로 따 먹어라.” 외숙모가 그렇게 정답게 말하지 않았던들, 나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외숙모는 진심으로 그렇게 했다. 놀웨이에서라면 전혀 생

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교회의 회원이 되는데 한 발자욱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나는 낮은 영어를 말하는 낮은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 나가야 할지 막연했었다. 1872년 7월 26일, 금요일 아침에, 외삼촌 맥으로 한 사람이 왔는데, 그는 들에서 일하는 그들 도와 줄 한 소년을 필요로 했다. 그는 피터슨이라 했다. 내 임금은 한 달에 8불이었다. 나는 20개월 동안 그와 함께 일했다. 그때 있었던 일을 잠시 말해야겠다. 당시 새로 들어온 사람은 다시 침례받는 것이 관례였다. 그래서 피터 피터슨의 부인인 카렌 라슨 피터슨은 나에게 말했다. “오늘 침례식이 있을 게다. 그러니 말을 수레에 매어 이 사람들을 물방앗간 못가로 데리고 가 침례받게 해라. 그리고 너도 역시 침례받아야 한다.” 나는 부인에게 그들을 기꺼이 데려다 주겠으나 나는 아직 침례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해 겨울 나는 영어를 조금 배우기 위해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또 한 외삼촌들과 함께 주일 학교에도 나갔다. 에이사 팩이 당시 교사로 있었다. 그들은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었다. 그러나 내 차레가 되면, 팩형제가 내가 읽을 구절을 대신 읽어 주어 조금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즐거웠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다니기를 즐겨 했다. 카렌 라슨 피터슨은 몸져 눕더니 1873년 2월 7일에 세상을 떠났고, 나의 학교 생활도 끝이 났다. 그러나 나는 충분히 배울 것을 배워 제3반에 들어갔다.

나는 복음 공부도 하고 그에 관해 기도도 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신 말씀이 나와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1873년 8월 30일에 나는 외삼촌에게서 침례를 받고 리하이에 사는 아브라함 로제에게서 확인을 받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된 것이다. *

그들은 전과 다름 없이 대해주었다

바바라 불



1975년 1월 11일 오후 1시 35분경 내가 집 근처에 있는 상점으로 가고 있을 때였다. 내가 보도 위를 걷고 있는데, 자동차 한 대가 6,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달려오더니 나를 전신주에 받아 넘어뜨렸다. 이내 경찰이 나타나 무전으로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나를 도와 주려고 했으나, 다리를 너무 무참하게 다쳐 다리가 잘린 곳에 지혈대를 붙여야 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는 거의 죽기 직전이었으나, 의사들의 열성적인 치료로 겨우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 감독님의 훌륭한 축복을 받은 뒤에, 나

는 수술을 받으러 갔다. 의사는 내 다리를 절단해야겠다고 말했는데, 그때 사고를 목격한 한 경비원이 10센티미터쯤 되는 나의 대퇴골을 찾아 급히 병원으로 가져왔다. 그 뼈가 수술실로 실려 오자, 의사는 내다리를 구해 보기로 결정했다. 후에 내 다리를 잃기는 했으나, 그들이 내 뼈를 즉시 가져오기만 했더라면, 13내지 15센티 미터 가량은 더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많은 친구와 친척들이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었다. 워드 회원들도 너무나 친절하게 도와 주어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여러 달 동안 부모님이 내 곁에 있을 수 있게 해주었다. 그들은 음식도 갖다 주며 염려하고 보살펴 주며 우리에게 큰 사랑과 관심을 보였다.

내가 뮤주얼에 관해서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은 젊은 회원들이 다음해에 뮤주얼에 참석할 연령에 이른 소년 소녀들을 마지막 모임에 초대한 것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으며, 수술을 마치고 다음 수술을 할 때에만 잠깐씩 집에서 지냈고, 아직도 휠체어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초대했을 때, 나는 몹시 놀랐다. 그들은 모두 다 도와줄 테니 아무 염려 말라고 말했으므로, 나도 참석했다. 정말 훌륭한 모임이었다.

내가 뮤주얼에 나갔을 때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는데도 꿀벌반 제1 과정의 제이 보좌로 부름을 받았다. 그해에 우리 반원들은 나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일을 해주었다. 감독의 오두막에서 가진 모임에 내가 참석할 수 없었으므로 나를 위해서 특별히 녹음을 해준 것을 잊을 수 없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도 녹음하여 병원에까지 가지고 와 모두 함께 들었다.

내가 목발을 의지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스테이크 꿀벌반 고문이 나에게 "사과씨"라는 연극에서 역을 맡아달라고 했다. 그 일로 해서 나는 내가 필요한 존재이며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9개월 동안 고통에 시달리며 내 다리를 구해 보려고 34번이나 수술을 시도한 끝에 의사는 내 다리를 절단하기를 권했다.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나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날은 1975년 9월 24일이었고, 내가 열 두 살 때였다. 반원들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나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 그들은 "전과 다름없이 지내자!" 하고 말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여 35번째의 마지막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우리 반원들은 공과를 녹음해 와 명량한 얼굴로

나를 즐겁게 해주곤 했다. 그들은 내가 집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라도 나를 찾아 주고 그들의 계획에 나를 포함시키곤 했다. 이렇게 하여 나는 내가 참석할 수 없었던 모든 재미있는 것들을 즐길 수 있었으며, 내가 빨리 나아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약 5개월 후에 우리 와드에서는 이백주년 기념 봄맞이 음악회를 열었는데 우리 반도 참석하게 되었다. 나도 물론 그들과 함께 참석했다. 나는 그때 보청기를 갖고 있었다. 반원들은 여러 모로 나를 도와 주어 내가 무대 위에서 훌륭하게 보이게 해주었으며, 계단에서 내려올 때도 나와 함께 내려와 내가 뒤에 처져 있지 않게 했다. 정말 자연스럽게 보였다. 그들은 내가 어떤 일을 부탁받으면 주저하지 않고 하게 해주었으며, 내가 노력만 한다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면 나도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름에 한반의 친구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그녀는 그렇게 했다. 한 여섯 번쯤 넘어지고 웃고 하다가, 나는 결국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되었다.

지난해에 마지막 갖는 모임은 수영 모임이었다. 나는 사실 가고 싶지 않았으나, 엄마와 친구들이 참석만이라도 하라고 권했다. 내가 그곳에 가 보니, 모두 다 한참 즐겁게 놀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이 함께 수영하자는 청을 물리칠 수 없어 엄마에게 수영복을 갖다 달라고 했다. 내가 의족을 빼어 내고 수영복으로 갈아 입었을 때, 친구들이 나를 부축하여 수영장으로 데려와 주었다.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모두가 진심으로 이해해 주며, 내가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해주었다.

올해 나는 꿀벌반 제1 과정의 회장으로 부름받았다.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내가 도움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

